

페르시아 정원에서의 공간에 대한 이해

주제전 | THEME EXHIBITION 파르야르 야바헤리안 Faryar JAVAHERIAN

Sense of Place in the Persian Garden

창조성은 인간과 자연이 만들어내는 모든 풍경 속에서 끊임없이 생겨나는 긴장감으로부터 생겨난다. 인간이 이루어낸 많은 일 중 정원을 창조한 사실은 아마도 인류 역사상 가장 숭고한 행위일 것이다. 약 7000년 혹은 8000년 전 이란 평원에 살던 사람들은 야생 식물과 꽃을 길들이고 재배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그들은 이러한 행위를 과학적이고 미학적인 감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상의 수준으로 만들어내었다. 농사를 짓기 위한 인간의 노력은 그것을 통하여 먹을거리를 생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하더라도 자연으로부터 아름다움을 포획하고 길들여서 소유하려고 했던 노력은 인류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순간이 아닐까 한다.

가장 오래된 페르시아 문헌에 나타나는 정원은 기원전 500년경 아케메네스 왕조의 수도였던 파사르가(PASARGADE)에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발굴된 기원전 5,000~6,000년경의 고대 엘람 시기의 수사 유적으로 보이는 인장에서 벽을 나무로 둘러싸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페르시아 정원은 역사도 오래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널리 퍼진 다른 정원의 디자인에 영향을 주었다. 'PAIRA-DAEZA'라는 단어는 고대 팔라비 언어로 '봉인된 장소'라는 뜻이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크세노폰이 아케메네스 왕조의 궁중 정원을 일컬으며 자주 언급했던 'PARADEISOS'는 이제 인도 유럽어족에서 'paradise'로 사용되고 있다.

페르시아의 우주 기원설에 따르면 두 개의 강이 직각으로 서로 만나 세상을 네 개로 나누었다고 전해진다. 이렇게 세상을 사등분하거나 혹은 네 개의 지역으로 생각하는 이론적 전형은 정원을 디자인할 때 '차하르 바그(chahar bagh)', 즉 '네 개의 정원'으로 나타나고, 건축에서 '차하르 타그(chahar tagh : 네 개의 둥근 천장. 穹窿)로 형상화된다. 조로아스터교의 경전인 <아베스타(Avesta)>에서는 파라다이스를 <코란>에서 묘사하고 있는 천국과 매우 비슷하다고 설명한다.

COMPARATIVE STUDY | DESIGN TO LIVE

비교 연구 | 집주

151

The tension which invariably exists in all landscapes between Man and Nature, is at the root of all creativity, and throughout all of mankind's history, the creation of gardens is perhaps the most sublime activity. Seven to eight thousand years ago, people on the Iranian plateau busied themselves working on wild plants and flowers in order to tame them and reproduce them, and they took this activity to scientific and aesthetic heights quite unimaginable. Human endeavors which resulted in agriculture are quite understandable since they resulted in the production of food, but the need to capture Beauty from Nature and to domesticate it, is a magical moment of our history.

The first documented garden in Persia is Pasargade, dating back to the Achaemenid Dynasty(500BC), but we have recently excavated seals from Shoush of the Elamite period(5000-6000 BC) which show trees enclosed in walls. The Persian Garden has a long history and has influenced other garden designs in the world, because the word PAIRA-DAEZA which is an old Pahlavi word and meant "an enclosed area" was often cited by Xenophon as PARADEISOS, referring to the Royal Gardens of the Achaemenid kings, and came to mean "paradise" in many Indo-European languages.

In Persian cosmogony, two rivers cross each other at a right angle and divide the world into four quarters. This paradigm of the four quarters of the world, or four corners of the world, created the "chahar bagh" (four gardens) in garden design and the "chahar tagh" (four vaults) in architecture. The paradise described in Avesta – the Zoroastrians' Holy Book, is very similar to Heaven as described in Qur'an.



In Iran, the most sacred element is water, and since Iranians are always envious of what they do not possess, water is the subject of the Persian Garden. Once this vital element is joined to the Cypress, the symbol of eternity in all Persian mythologies, the Persian Garden becomes indeed a sacred realm. Nature which abounded in floods, earthquakes and droughts, could not in itself become a subject of adoration, although Zoroastrians did venerate the sun. By creating a perfect Nature in the Persian Garden, Persians were actually endeavoring to tame Nature and create a Heaven on earth, and thus they had to enclose it within walls in order to keep the chaotic world of Nature out. Zoroastrians believed that the garden must be enclosed within seven layers of walls in order to prevent evil to penetrate it. Persian carpets, which are sometimes re-creations of the Persian Garden, often have seven margins around them.

The Persian Garden begins in the central water basin, a shallow pool, from which four canals run in the four directions and divide the garden into four quarters. This paradigm of the four-fold garden has first been detected in a Sumerian seal which shows two rivers crossing each other at a right angle has been the symbol of the chahar-bagh for the last 4500 years. This paradigm is woven into carpets, drawn into miniatures, and has been the starting point for many garden and city designs.

In spite of the diversity of climates and landscapes from the green shores of the Caspian Sea in the North, to the mountainous areas of the Zagros and Alborz, to the desert and flat lands of Khouzestan, the Persian Garden has preserved this geometric paradigm, although its scale and subdivisions are adapted to the land.

이란에서 가장 신성시되는 요소는 물이다. 이란인들은 자신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항상 욕망해왔는데, 물이 바로 페르시아 정원의 주제가 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그래서 생명의 원소인 물과 사이프러스 나무가 만나 모든 페르시아 신화에서 영원을 상징하게 되었고, 페르시아 정원은 신성한 영토가 되었다. 조로아스터교도들은 불을 숭배한다고 하더라도 홍수와 지진, 가뭄이 반복되는 자연 그 자체만을 숭앙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페르시아 사람들은 정원 안에 완벽한 자연을 창조하여 천상을 땅 위에 창조하고 자연을 길들이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혼돈 속에 있는 외부 세계로부터 자연을 보호하려고 벽을 만들어 그 둘레를 감쌌다. 조로아스터교도들은 정원은 반드시 일곱 겹의 벽으로 둘러싸여야 나쁜 기운이 벽을 뚫지 못한다고 믿었다. 그러한 생각을 보여주는 예로 페르시아 카펫을 들 수 있는데, 페르시아 정원을 다시 형상화한 듯이 카펫의 가장자리에 일곱 층의 둘레를 두르고 난 다음 장식을 하기도 한다.

페르시아 정원은 가운데 위치한 얇고 물이 가득 찬 웅덩이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네 방향에 인공 수로를 놓아 전체를 네 부분으로 나눈다. 이러한 전통은 수메르인의 인장에서도 발견되었는데 두 개의 강이 직각으로 만나 '차하르 바그 chahar-bagh : 네 개의 정원'을 상징하는 우주관을 나타내는 것은 약 4500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전통은 다시 카펫이나 미니어처, 정원과 도시 디자인에 적용되었다. 카스피해 북쪽 연안의 해변에서 자그로스알보르즈 산악 지대나 코제스탄 지방의 사막과 평지까지 기후와 풍경이 매우 다양함에도 페르시아의 정원은 지역에 따라 규모나 디테일만 변화할 뿐 기하학적 구조나 디자인은 모두 똑같은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환경적인 요인으로 이 지방에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페르시아 정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물을 전시하는 것이다. 정원사는 물의 느낌을 최대한 볼륨 있게 연출하기 위하여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디자

The most important element of the Persian Garden is the exhibition of water, justified by its rarity in our land. The Persian gardener goes through incredible trouble to make the water look more voluminous than it really is. He takes it underground many times, to make it resurge in fountains and basins. He drops it on many small water falls in the canals to give it more volume – and produce sounds. The techniques he uses on these waterfalls – “sine kabki” – sculptured stones in relief looking like a pigeon’s feathers, make a very shallow layer of water, perhaps a few centimeters-thick, look like a flood of water. The huge basins or ponds are never more than 20 to 30 centimeters deep, but they exhibit vast expanses of water. The central pool, which reflects the main pavilion and the sky, is the main focus of the Persian Garden: the point where Heaven and Earth are united.

The structural elements of the Persian Garden are:

- the source of water, or mazhare ab, a place full of mystery, sometimes very far away from the garden itself – up to 70 km away, arriving to the garden through the system of qanat – underground aqueducts. The source is a totally sacred place, and the most advantageous display of water in the garden’s canals and basins is the main theme of the Persian Garden
- the two major axes which cross each other at a right angle and produce four large areas, which are then each subdivided into four, and subdivided again, until an irrigable size of planting area is reached

인에 힘쓴다. 땅을 파기도 하고 물줄기가 다시 분수나 연못으로 되돌아가도록 장치한다. 그리고 각 수로에는 작은 폭포를 만들어 입체적인 물의 흐름을 유도하면서 동시에 소리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폭포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을 '시네 캅키sine kabki'라 하는데, 마치 비둘기 깃털 같은 모양의 얇은 돌로 만든 부조를 물이 흐르는 곳에 얇게 설치하여 그 흐름을 풍성하고 충만하게 보이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아무리 커다란 웅덩이나 연못이라도 해도 20~30센티미터의 깊이밖에 되지 않지만 그 정도만 하더라도 엄청난 물의 사용을 보여주는 셈이다.

중양의 큰 연못에는 주 건축물과 하늘이 비치는데 이는 하늘과 땅이 하나로 만나는 상징으로 페르시아 정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페르시아 정원의 구조적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 물의 원천지, 혹은 '마자레 압mazhare ab'은, 신비로 가득 찬 장소로 때로는 실제 정원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한다. 약 70킬로미터나 떨어진 곳도 있는데 여기서 정원까지는 지하에 설치된 수로인 카나트qanat 시스템을 통하여 물이 운반된다. 수원지는 신성한 곳으로 여기는데 페르시아 정원의 수로나 웅덩이를 연출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 두 개의 중앙 축은 서로 직각으로 만나 땅을 네 부분으로 나누고 다시 각각의 부분은 두 축이 네 개의 다른 작은 구역을 나누어 식물을 가꿀 수 있는 관개 시설로 구획 된다.

- 가운데 중앙 축들을 따라 심어지는 나무들은 지역의 기후에 알맞게 사이프러스, 소나무나 야자수와 일반 나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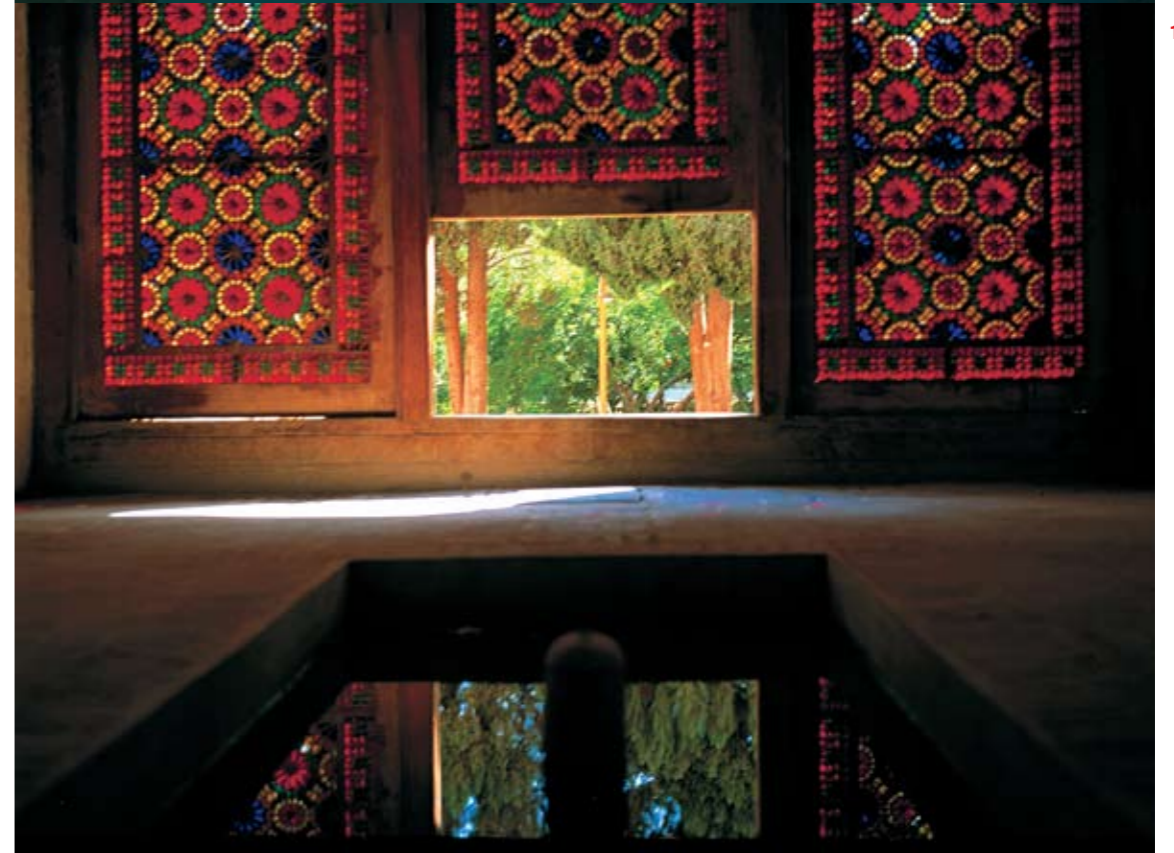
- 화단과 길을 장식적으로 배치한 정원에는 다섯 개의 포인트에 과일나무를 기른다. 사각형의 네 모퉁이와 정가운데에 나무를 심어 뿌리가 물과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the planting of the major trees along the main axes, especially cypresses, pines, plane trees and palms, according to the various climates
- the planting of fruit trees in the parterres according to the five-point geometry: the four corners of a square and its center, so that the roots get maximum food and water
- the planting of perfumed and colorful flowers along the main axes, with an emphasis on the rose, since it is the rose's perfume which entices the nightingale to sing

The aesthetic experience of the Persian Garden engages all five senses: the pleasure of seeing a beautiful landscape, especially from within the main pavilion: the major paradox being that, even though the garden is enclosed, the views from the pavilions offer infinite landscapes within. The breezes inside the garden, the songs of the birds, the sounds of waterfalls and fountains, the perfume of flowers and plants... In fact the word "bustan" which means a flower garden is nothing but the joining of "bu" (smell) and "stan" (place). The various ceremonies for eating fruit in the Persian Garden are also very elaborate and pleasurable, especially the white berries.

The typology of the Persian Garden is very much defined by its various terms in the Persian language: bagh shekargah, bagh mazar, golestan, bustan, baghe miveh, baghe shahzadeh, all of them following the same ordered geometry as much as possible.

The purpose of the Persian Garden is to create an oasis of peacefulness and well-being enclosed from the chaotic nature outside. It is the ideal space for creating and reciting poetry, falling in love, contemplating God or withdrawing into meditation, in ot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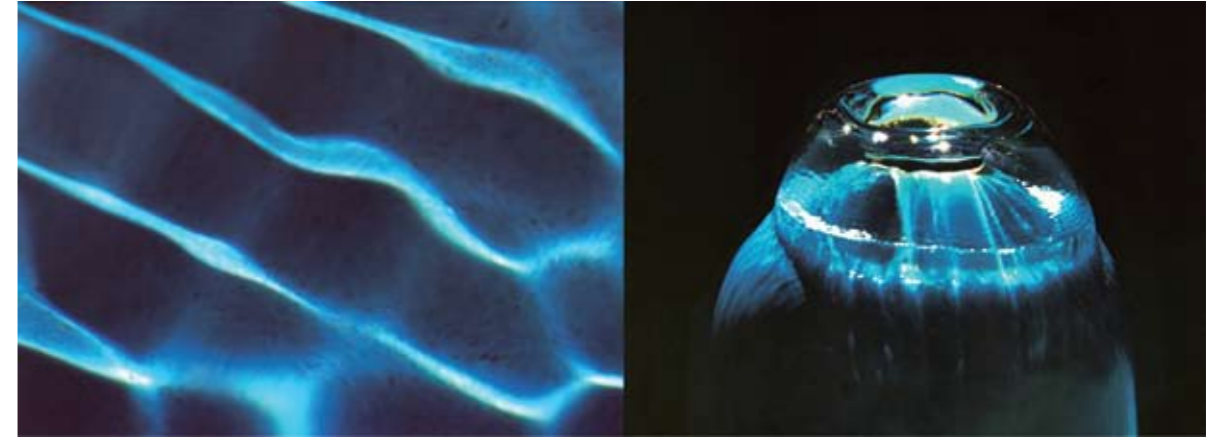


-향기롭고 색깔이 아름다운 꽃들은 역시 중앙의 주요 축에 심는다. 특히 장미를 위주로 심는데 나이팅 게일이 장미의 향기를 맡으면 노래를 하기 때문이다.

페르시아 정원의 미감적 경험은 오감과 관련되었다.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 즐거움은 중앙의 주 건축물에서 최대화된다. 비록 정원이 벽에 둘러싸여 있지만 건축물에서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 풍경은 끝없이 펼쳐지는 파노라마 같기 때문이다. 정원에는 바람도 불고 새가 울며 폭포와 분수 소리, 꽃과 나무의 향기로 가득하다. 화원을 뜻하는 '부스탄bustan'이란 냄새, 향기를 뜻하는 '부bu'와 장소를 뜻하는 '스탄stan'이 만나서 생긴 단어이다. 페르시아 정원에서 과일을 먹는 것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는 매우 화려하고 즐거운데, 그중에서도 특히 화이트베리를 먹는 행사가 극치를 이룬다.

페르시아 정원의 유형은 페르시아 언어의 다양한 전문 용어를 통하여 알려지고 있다. 바그 세카르가, 바그 마자르, 골레스탄, 부스탄, 바게 미베, 바게 샤자데 등의 단어들은 모두 기하학적 질서와 관련되어 있다. 페르시아 정원의 목적은 외부의 혼란스러운 자연을 차단하고 평화롭고 건강한 오아시스를 창조하려는 것이다. 시를 짓고 낭독하거나, 사랑에 빠지고, 신에게 기도를 하거나 명상을 하기에 이상적인 공간이다. 그래서 인간이 현세적인 재현을 경험하지만 실은 천상에 가까워지도록 하는 것이다.

페르시아의 정원은 '상상 속의 세상' 안에서 존재하던 파라다이스의 이론적인 이미지를 지상에서 실현해놓은 것이다. 그곳은 이란 사람들의 원형적인 기억 속에 언제나 함께해 온 장소이다. 아더 우팜 Arthur Upham 교황이 "모든 이란 사람들은 마음 한구석에 정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듯이 이란 사람들이 물과 나무, 꽃을 가꾸는 신비한 비법을 알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페르시아 정원은 그야말로 신성한 장소이다. 페르시아 정원의 힘은 이란의 농업과 경작의 역사와 함께 거슬러 올라간다. 그 오랜 세



월 동안 창조적인 이 민족은 척박한 자연환경과 싸워가며 신성한 의식과 궁정 의례를 위한 시적인 공간을 만들어내었다. 그래서 그들의 정원은 복잡하고 화려한 결과물이다. 또한 열기 가득한 사막 한가운데 만든 정원의 분수에서 물이 솟아나도록 지하의 긴 수로로 물을 끌어들이는 놀라운 가능성을 그대로 실현시킨 멋진 일이다.

words making Man closer to Heaven by experiencing its earthly representation.

The Persian Garden is the earthly manifestation of the paradigmatic image of paradise which exists in the “imaginal world” and has always been in the archetypal memories of the Iranian people. As Arthur Upham Pope said: “Every Iranian has a garden in a corner of his mind.” The mystic relation with which Iranians nurture water, trees and flowers, clearly shows that the Persian Garden is a sacred realm. The charisma of the Persian Garden is deeply rooted in Iran’s most ancient past and dates back to the beginning of agriculture and irrigation. The Persian Garden is the elaborate product of a creative people living in a hostile environment, devising a poetic realm for sacred rituals and royal ceremonies. It is also a magnificent expression of the idea that water could be drawn from the innermost layers of the feverish desert earth, running underground for long stretches to emerge from a fountain in the middle of a garden.